



20 2-13

정석규 | 한영신대

1. 들어가는 글

민수기 20장 2-13절은 모세와 아론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야웨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언급한다. 즉, 모세와 아론이 므리바 물 기적 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웨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야웨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오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된다(민 20:2-13, 22-29; 27:12-14; 신 32:48-52).

이 기사에 대한 이전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민수기 20장 2-13절 (또는 20장 1-13절)과 출애굽기 17장 1-7절 (또는 17장 1b-7절)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민수기 20장 2-13절의 기사는 출애굽기

www.kci.go.kr

17장 1b-7절의 기사와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¹⁾

두 텍스트 사이의 주요 유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두 텍스트는 모두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툰 것(כִּי רִיב)을 다루고 있다(출 17:2; 민 20:3). 두 텍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상황 가운데 모세에 대항하고 다투고 있다. 둘째, 두 텍스트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לָמַעַן אֲרָא)에 대하여 불평했다고 언급한다(출 17:3; 민 20:5).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불평하였다. 셋째, 두 텍스트는 모두 백성들이 그들의 짐승을 손실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다룬다(출 17:3; 민 20:4). 물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물인 가축까지도 손실되게 되었다고 말한다. 넷째, 두 텍스트는 모두 이스라엘의 다툼과 관련하여 ‘므리바’라는 지명에 대한 기원론적 설명과 함께 마무리된다(출 17:7; 민 20:13).

반면에 두 텍스트 사이에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두 텍스트는 백성들이 불평한 대상을 달리 묘사한다. 출애굽기 17장 2절은 백성들이 불평한 대상을 ‘모세’로 언급하는 반면, 민수기 20장 2절은 백성들이 공박한 대상을 ‘모세와 아론’으로 설명한다. 둘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이 각 텍스트에 다르게 묘사된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야웨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명령한 반면,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야웨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다. 셋째, 두 텍스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를 다르게 묘사한다. 출애굽

1)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므리바 사건에 대한 비교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Baruch A. Levine, *Numbers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1993), 484; Nathaniel Helfgot, “And Moses Struck the Rock”: Numbers 20 and the Leadership of Moses,” *Tradition* 27:3 (1993), 51-53; Johnson Lim Teng Kok, *The Sin of Moses and the Staff of God: A Narrative Approach* (Assen, The Netherlands: VanGorcus & Comp., 1997), 90-105.

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70:1 나사)’이 죄로 설명되는 반면(출 17:2, 7), 민수기 2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세의 죄를 야웨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다(민 20:12). 넷째, 두 텍스트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행한 기적을 목격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기적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출 17:6) 행한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 민수기 20장에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민 20:12) 행한 것으로 묘사된다. 다섯째, 두 텍스트의 배열된 위치에 차이가 있다. 출애굽기 17장의 기사는 광야생활의 초기에 위치한 반면, 민수기 20장의 기사는 광야생활의 마지막 시기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통시적 경향의 학자들은 두 텍스트 사이에 있는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이 발생한 것은 현재 형태의 텍스트 이면에 있는 자료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P 자료에 속한 민수기 20장 2-13절이 JE 자료에 속한 출애굽기 17장 1-7절을 확장하고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

둘째로 민수기 20장 2-13절에 대한 이전 연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언급하는 텍스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오경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된다. 몇 개의 텍스트(민 20:2-13, 22-29; 27:12-14; 신 32:48-52)는 야웨께서 모세와 아론의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반면에 신명기에 있는 몇

2) Martin Noth, *Numbers*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144; A. C. Tunyogi, *The Rebellions of Israel* (Richmond: John Knox Press, 1969), 42; Levine, 윗글, 484; Helfgot, 윗글, 51-53; P. J. Budd, *Numbers* (WBC; Waco: Word Books, 1984), 217; T.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3), 378-79.

개의 텍스트(신 1:37-38; 3:23-29; 4:21)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모세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대부분의 통시적 경향의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도 현재 형태의 배후에 있는 자료들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자들은 이면 자료들의 신화적이며 언어학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모세와 아론의 죄를 지적하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P 자료에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텍스트는 D 자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³⁾ 반면에 공시적 경향의 학자들은 현재 형태의 오경에 집중하여, 신명기에 언급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배제된 이유를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재해석함으로써 두 개의 다른 이해를 종합하려고 시도한다.⁴⁾

셋째로 민수기 20장 2-13절에 대한 이전 연구는 본문에서 모세가 행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과 연관된다. 이 텍스트에서 모세의 죄를 밝히는 것은 오경에서 가장 모호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아덴(Eugene Arden)은 이것을 “오경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⁵⁾이라고 표현했다. 비록 텍스트가 모세의 죄를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민 20:12)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모세의 어떤 행동, 또는 모습과 연관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밀그롬(J. Milgrom)은 그의 주석에서 모세의 죄의 정체에 대

3) Gerhard von Rad, *Deuteronom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45; Noth, *윗글*, 144; G. Coats, “Legendary Motifs in the Moses Death Reports,” *CBQ* 39 (1977), 38-39 ; T. W. Mann,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Denial of Moses,” *JBL* 98 (1979), 483; Patrick D. Miller, *Deuteronomy*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242-43; Moshe Weinfeld, *Deuteronomy 1-1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1991), 150-51; Jeffrey H. Tigay,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Jewish Publication Society: Philadelphia/ NewYork, 1996), 425, 518; William H. C. Propp, “Why Moses Could Not Enter The Promised Land,” *BR* 14:3 (1998), 37-38.

4) Propp, *윗글*, 43.

5) Eugene Arden, “How Moses Failed God,” *JBL* 76 (1957), 50.

한 전통적인 견해를 아래와 같이 세 범주로 나누어 열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다.⁶⁾

첫째 범주는 모세가 바위를 친 행동과 연관된다.⁷⁾ 이 범주에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포함된다. 첫째 의견은 모세가 바위에 명하는 것 대신 지팡이로 친 행동이 죄라는 것이다. 둘째 의견은 모세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바위를 선택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의견은 모세가 바위를 한 번 치지 않고 두 번 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둘째 범주는 모세의 성격과 연관된다.⁸⁾ 이 범주에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포함된다. 첫째 의견은 모세가 백성들을 ‘반역한 자’ (민 20:10)라고 표현함으로써 불같은 성질을 드러낸 것이 죄라는 것이다. 둘째 의견은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대면하기보다는 회막으로 도망가는 비겁함을 보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의견은 모세가 물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아픔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것이 지도자의 죄였다는 것이다.

셋째 범주는 민수기 20장 10절에 나타난 모세의 말과 연관된다. 이 범주에는 네 가지 의견이 포함된다. 첫째 의견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의문 문 형식의 말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오해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의견은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여”라고 부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넷째 의견은 모세가 ‘야웨께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 물을 내랴”라고 말한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열 가지 설명 외에도 모세의 죄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있는 네

6) J. Milgrom,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448–56.

7) Propp, *룻글*, 40; Kok, *룻글*; Rolf P. Kriemer, and George S. Coats, *Numbers* (FOTL;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2005), 227–28.

8) Coats, “Legendary Motifs in the Moses Death Reports,” 39; Coats, *Rebellion in the Wildernes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80–81.

가지의 의견이 더 있다. 첫째, 프로프(William H. C. Propp)은 모세의 죄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로 바위를 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⁹⁾ 둘째, 밀그롬은 바위에게 명령한 모세의 행동은 이교도의 마술 형태로, 이것이 곧 모세의 근본적 죄라 주장한다.¹⁰⁾ 셋째,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미리암의 죽음과 장례(민 20:1) 이후에 정결의식(참조. 민 19장)을 행하지 않고 바위를 치는 거룩한 기적을 수행한 것이 모세의 죄라고 주장한다.¹¹⁾ 넷째, 어떤 학자들은 텍스트 자체가 모세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세의 죄를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주장한다.¹²⁾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 가운데 어떤 것도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볼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모세의 죄와 그러한 죄에 대한 처벌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하여 성서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위에서 언급한 어떤 해석도 본문 자체에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민수기 20장 2-13절과 다른 유사한 본문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비교 연구도, 본문의 배후의 자료들과 발전 과정을 살피는 통시적 접근도, 그리고 모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역적 연구도 아니다. 본 논문은 현재 형태의 민수기 20장 2-13절을 하나의 정당한 문학적 단위로 인정하여, 그 텍스트의 문학적이며 신학적 관심사와 의도를 밝히는 공시적 연구이다. 본 논문은 먼저 민수기 20장 2-13절이 하나의 문학적 단락

9) Propp, "The Rod of Aaron and the Sin of Moses," *JBL* 107 (1988), 19-26.

10) Milgrom, *윳글*, 454. 그러나 현재의 텍스트는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하라고 명확하게 언급한다(민 20:8).

11) Marvin A. Sweeney,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139-40.

12) G. B.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262; Dennis T. Olson, *Numbers*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128; K. D. Sakenfeld, "Theological and Redactional Problems in Numbers 20:2-13," *Understanding the Word: Essays in Honor of B. W. Anderson* (JSOTSup 37; Sheffield: JSOT Press, 1985), 133-51.

으로 정당함을 증명하고, 이러한 문학적 단락을 구조분석 방법을 통해서 추적하여 본문의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2. 민수기 20장 2-13절의 범위

현재 형태의 민수기 20장 2-13절은 민수기 20장 1-21절인 더 큰 문학적 단락에 속한다. 민수기 20장 1-21절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 이 신 광야에 이르러 … 가데스에 이르더니”(20:1)라는 여정 형식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자손 … 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20:22)라는 또 다른 여정 형식 바로 앞에서 마무리된다. 이러한 여정 형식은 광야 내러티브의 문학적 틀로 이해될 수 있다.¹³⁾ 그러므로 이러한 외형적 특징에 근거하여 민수기 20장 1-21절은 하나의 정당한 문학적 단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수기 20장 1-21절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¹⁴⁾

13) 크로스(Cross)와 코츠(Coats)는 열 두 개의 형식적 머리말로 구성된 광야의 여정 형식이 P에 의해 고안된 틀이라고 주장한다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307-21; George W. Coats, “The Wilderness Itinerary,” *CBQ* 34 [1972], 135-52). P에 의해 고안된 여정 형식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출 12:37a; 13:20; 14:1; 15:22a; 16:1; 17:1a; 19:2; 민 10:12; 20:1a, 22; 21:10; 22:1. 반면에 데이비스(Davies)는 신명기적, 그리고 신명기 역사적 전승에 영향을 받은 편집자가 광야 내러티브 가운데 이러한 여정 형식을 삽입했다고 주장한다(G. I. Davies, “The Wilderness Itinerari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VT* 33 [1983], 1-13).

14) 민수기 20:1-21은 그 후에 나오는 여정 형식(20:22)으로 시작되는 문학적 단위인 민수기 20:22-21:9와 대응되는 구조를 갖는다. 민수기 20:22-21:9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 여정 형식	20:22
II. 호르산에서의 사건들	20:23-21:9
A. 아론의 죽음	20:23-29
B. 호르마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	21:1-3
C.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협상 실패	21:4-9

민수기 20:1-21과 20:22-21:9는 모두 여정 형식으로 시작되고(20:1a, 22), 이어서 여정 형식에서 언급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20:1b-21; 20:23-21:9). 각 사건의 첫 번째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다룬다(20:1b, 23-29). 두 번째 사건은 아웨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20:2-

I. 여정 형식	20:1a
II. 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보도	20:1b-21
A. 미리암의 죽음	20:1b
B.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웨의 거절	20:2-13
C. 모세의 에돔과의 협상 실패	20:14-21

민수기 20장 1-21절은 그것의 형식에 있어서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다: 1) 여정 형식(20:1a), 2) 신 광야에서의 사건에 대한 보도(20:1b-21). 둘째 문단은 그것의 주제에 있어서 세 개의 소문단으로 구성된다: 1) 미리암의 죽음(20:1b), 2)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웨의 거절(20:14-21), 3) 모세의 에돔과의 협상 실패(20:14-21).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민수기 20장 2-13절은 더 큰 문학적 단락인 민수기 20장 1-21절에 속해 있는 정당한 문학적 단위라 할 수 있다.

3. 민수기 20장 2-13절의 구조

민수기 20장 2-13절은 모세와 아론의 죄로 인해 그들이 약속에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아웨께서 막으셨다는 보도를 다룬다. 민수기 20장 2-13절은 아래의 표와 같이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3개의 문단으로 구성된다.

I. 상황에 대한 서론적 해설: 물이 없음	20:2a
II. 사건 자체	20:2b-12
III(I'). 이름에 대한 기원론적 설명: 트리바 물	20:13

민수기 20장 2-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한 서론적 설명과 함께 시작되며(20:2a), 결론적인 기원론적 설명(20:13)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물이 없는 상황은 이후의 사건(20:2b-12)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발점이 되며, 기원론적 설명은 주제어인 ‘물(מים) 마임’과 관련하여 ‘트리바’라는 이름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이전의 사건을 끝맺는 기

능을 한다. 주제어인 ‘물(מים 마임)’은 서론(20:2a)과 결론(20:13)에 반복됨으로 이 두 문단을 연결하는 문학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완전수인 칠 회 반복됨으로(20:2, 5, 8x2, 10, 11, 13) 민수기 20장 2-13절을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응집시키는 기능도 한다.

민수기 20장 2-13절의 중심부인 두 번째 문단(20:2b-12)은 물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자체를 다룬다. 이 문단은 다섯 개의 소문단이 교차 대구구조(chiasmus)로 배열된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야웨의 지시를 다루는 셋째 소문단(20:6b-8)은 이 문단의 중앙에 위치함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강조된다. 두 번째 문단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A. 모세의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적 평가	20:2b-5
1. 백성들의 다투는 행동	20:2b-3a
a. 백성들이 모여들	20:2b
b(a'). 백성들이 다투	20:3a
2. 백성들의 불평하는 말	20:3b-5
a. 불평에 대한 일반적 표현	20:3b
b. 불평에 대한 구체적 표현	20:4-5
1) 일반적 고발	20:4
2) 구체적 고발	20:5
B.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	20:6a
C. 모세에게 주어진 야웨의 지시	20:6b-8
1. 야웨의 행동: 야웨의 영광이 나타남	20:6b
2. 야웨의 말씀	20:7-8
a. 이야기 도입부	20:7
b. 말씀 자체	20:8
D(B'). 야웨의 명령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	20:9-11
1. 기적을 행하기 위한 모세의 준비	20:9-10a
a. 지팡이를 잡음	20:9
b. 회중을 모음	20:10a
2.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말	20:10b
3. 모세의 기적의 행동	20:11
a. 모세의 기적 자체	20:11a
b. 모세 기적의 결과	20:11b
E(A'). 모세의 행동에 대한 야웨의 부정적 평가	20:12
1. 야웨의 고발	20:12a
2. 야웨의 판결	20:12b

첫째 소문단(20:2b-5)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다룬다. 이 소문단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두 개의 단위로 구성된다: 1) 백성들의 불평의 행동(20:2b-3a), 2) 백성들의 불평의 말(20:3b-5). 첫째 단위(20:2b-3a)에서 백성들의 불평은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 행동은 두 개의 병행 문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형태로 설명된다. 백성들은 먼저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였고(20:2b), 물의 걸핍으로 인해 모세와 다투었다(20:3a).

여기서 모세는 모든 상황에 다 등장하지만, 아론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행동에만 등장하고(20:2b) 백성들이 다투는 행동에는 배제되어 나타난다(20:3a). 이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론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인물로 묘사하려는 텍스트의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¹⁵⁾ 첫째 단위에서 주제어인 ‘다투다(נִיחַ, 리브, 20:3)’라는 동사는 민수기 20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웨와 다투었다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백성들의 지도자와의 다툼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수사학적 장치라 할 수 있다.¹⁶⁾

백성들의 불평하는 행동은 둘째 단위(20:3b-5)에서 불평의 말로 확장된다. 불평의 말은 먼저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으로 표현된다(20:3b). 이러한 소망은 ‘죽다(מָוָה) 가

13) 아웨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다룬다(21:1-3). 세 번째 사건은 모두 에돔과 연관된 것을 다룬다. 민수기 20:14-21은 에돔의 땅을 지나가게 해 달라는 모세의 부탁을 에돔이 거절한 것을 다루며, 민수기 21:4-9는 에돔의 땅을 지나가지 못함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평을 다룬다.

15) M. Margalit, “The Transgression of Moses and Aaron – Num 20:1-13,” *JQR* 74:2 (1983), 202-03. 이 글에서 마가리오트(M. Margalit)는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민 16:11) 아론이 백성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16) Coats, *Rebellion in the Wilderness*, 75. 그러나 이(Lee)는 이 용어가 물의 걸핍이라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한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로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Won Lee, “The Exclusion of Moses from the Promised Land: a conceptual approach,” *Changing face of form criticis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Mich.; Cambridge, U.K.: Eerdmans, 2003], 226-28).

봐) 라는 동사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이 소망은 두 개의 의문문 형태로 표현된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두 번에 걸친 고발로 확장된다(20:4-5). 이러한 구체적인 불평은 의문사인 ‘어찌 하여(הֲיִשָּׁר לָמָּה 라마)’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이 의문사와 함께 그들을 광야로 이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백성들의 고발이 시작된다.¹⁷⁾ 첫째 고발에서 모세의 인도와 광야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묘사된다(20:4). 그러나 둘째 고발에서 모세의 인도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광야는 곡식과 과실과 물이 없는 악한 장소로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된다(20:5). 이와 같이 둘째 단위(20:3b-5)에서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주제는 일반적인 언급에서 구체적인 묘사로 진행되는 두 번에 걸친 ‘종합적 평행법’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둘째 소문단(20:6a)은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다룬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 대항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려는 시도도 없이 회막으로 피했다. 여기서 회막은 일종의 도피처라 할 수 있다.¹⁸⁾

셋째 소문단(20:6b-8)은 모세에게 주어진 야웨의 지시를 다룬다. 이 소문단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두 개의 단위로 구성된다: 1) 야웨의 행동(20:6b), 2) 야웨의 말씀(20:7-8). 야웨께서는 회막에 피신해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다(20:6b). 그리고 야웨께서는 모세에게 물의 결핍으로 인해 불평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의 형태로 가르침을 주셨다(20:7-8) 야웨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은 네 단계로 매

17) 민수기 20:4-5에 있는 두 개의 복수형태의 동사들인 הֲיִשָּׁר (하베템, 너희가 인도하다)과 הֲיִשָּׁרָה (헤에리투누, 너희가 나오게 하다)의 주어가 누구를 지시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마가리오트는 이 동사들의 주어가 모세와 아론이라기보다는 모세와 아웨라고 주장한다(Margaliot, 윗글, 202-03). 그러나 민수기 20:2에서 백성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모였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된다. 그러므로 이 동사들의 주어를 모세와 아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문론적으로 볼 때 더욱 타당하다.

18) Margaliot, 윗글, 205; Milgrom, 윗글, 165.

우 구체적으로 설명된다(20:8): 1) 지팡이를 취하는 것(20:8aa), 2) 회중들을 모으는 것(20:8aa2), 3) 백성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20:8aβ), 4) 반석에서 나온 물로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는 것(20:8b).

넷째 소문단(20:9-11)은 야웨의 지시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다룬다. 이 소문단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세 개의 단위들로 구성된다: 1) 기적을 행하기 위한 모세의 준비(20:9-10a), 2)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말(20:10b), 3) 모세가 기적을 행함(20:11). 물 기적을 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다루는 첫째 단위에서 모세는 야웨께서 그에게 지시한 그대로 행했다(참조. 20:8). 모세는 지팡이를 취했고(20:9),¹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20:10a). 민수기 20장 9절은 “모세가 그 명령대로(כַּאֲשֶׁר צִוְּיָהּ) 카아쉐르 쩌바후)”라고 표현함으로써 모세가 기적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야웨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음을 강조한다.

둘째 단위(20:10b)에서 모세의 행동은 백성들을 향한 그의 연설로 이어진다. 모세는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여(הַמְרִיבִים 함모림)”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였다.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강조형 전 접어와 함께 사용된 명령형 동사(שָׁמְעוּנָא 쉰우나)를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세가 백성들을 ‘반역한 자’로 책망하며 부른 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지도자의 바른 모습으로 이해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에 야웨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자”(민 17:10; 히브리 성경은 17:25)라고 불렀고, 신명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야웨 하나님에 대항

19) 프롭은 모세의 죄가 자신의 지팡이를 취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Propp, 윗 글, 19-26). 그러나 지팡이를 취하는 것은 모세의 죄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취하라고 명령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민 20:9). 마가리오투는 모세가 취한 지팡이가 아론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아론의 지팡이는 단지 대제사장의 지명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과 맛사(출 17:2-7)에서 야웨의 기적을 수행했었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Margaliot, 윗글, 210-11).

하여 반역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신 1:26, 43; 9:7, 23-24; 31:27).²⁰⁾ 그러므로 이 호칭을 모세의 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호칭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20:10b). 모세의 이 말은 아웨께서 지시하신 말과 거의 일치한다. 아웨께서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20:8)고 지시하셨다. 비록 화자의 차이로 인해 인칭 접미사가 다르긴 하지만, 아웨의 말씀과 모세의 말에는 모두 주 제어인 **אָוֶה**(아짜, 나오게 하다)가 히필(hiphil)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 물을 내랴?”라는 수사학적 의문문은 아웨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²¹⁾

백성들에 대한 책망 후에 모세는 물 기적을 수행하였다. 모세의 물 기적을 다루는 셋째 단위(20:11)는 두 개의 소단위들로 구성된다: 1) 모세의 행동 자체(20:11a), 2) 모세의 행동의 결과(20:11b). 모세의 행동은 두 단계로 설명된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손을 들었다. 이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진 아웨의 지시(20:8)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몇몇 학자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행동, 또는 반석을 한 번 치지 않고 두 번 친 행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끈 모세의 죄라고 주장한다.²²⁾ 그러나 이

20) 마가리오트는 아웨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실 때 이 용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민 20:24; 27:14) “반역한 자”라는 용어를 모세가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Margalit, *위글*, 212). 그러나 아웨께서 아웨께 대항한 자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신 1:26, 43; 9:7, 23-24; 31:27 등).

21) “우리가 … 내라(אָוֶה נוצר) 노찌)”라는 수사학적 의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들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Margalit, *위글*, 213-15.

22)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모세의 반석을 친 행동은 모세 자신이 임의로 한 것으로 아웨에 대한 불순종과 아웨의 능력을 불신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Lee, *위글*, 232; John A. Beck, “Why did Moses Strike out? The Narrative-Geographical Shaping of Moses’ Disqualification in Numbers 20:1-1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5 (2003), 140; Gordon Wenham,

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형태의 오경에서, 모세는 이전에도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다(출 17:6).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용할 것을 전제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가 바위를 한 번 치지 않고 두 번 친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불신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진노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²³⁾ 이러한 모세의 진노는 백성들을 “반역한 자”(20:10)라고 호칭한 것과 일맥상통한 행동이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아웨의 약속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물로 목말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이게 되었다(20:11b).

다섯째 소문단(20:12)은 모세의 행동에 대한 아웨의 부정적인 평가를 다룬다. 아웨는 모세와 아론이 아웨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고소하였다(20:12a). 아웨의 고소는 접속사 ‘왜냐하면(לְמַעַן) 아안’과 함께 시작된다. 이 접속사는 모세의 물 기적 행동을 다루는 앞의 소문단(20:9-11)과 이 소문단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즉, 아웨의 고소는 모세의 앞선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לְמַעַן) 아안’이라는 접속사는 민수기서에서 단지 두 번 사용되고 있다(11:20; 20:12).²⁴⁾ 민수기 11장 20절에서 이 접속사는 의문사인 ‘왜(מַה־לָּמָּה 라마)’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이 의문사와 접속사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백성들이 고기의 결핍으로 인해 불평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민수기 11장 20절과 유사하게, 물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다

Numbers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England: IVP, 1981), 149-51.

23) Milgrom, 윗글, 165.

24) 이 용어는 구약 전체에 97회 반복되지만, 오경에는 5회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창 22:16; 레 26:43; 민 11:20; 20:12; 신 1:36).

루는 문단인 민수기 20장 2b-12절에서도 이 두 단어는 서로 연관하여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민수기 20장 12절의 ‘왜냐하면(לְמַעַן 야안)’이라는 접속사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백성들의 고발을 언급하는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왜(לָמָּה 라마)’라는 의문사(20:4, 5)와 연계되어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야웨의 고발(20:12)과 백성들의 고발(20:4-5) 사이의 연결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첫째 소문단(20:2b-5)과 다섯째 소문단(20:12) 사이의 대응 관계도 보여준다. 민수기 20장 12a절은 야웨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죄가 야웨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웨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야웨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모습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는 않는다.

야웨의 고발 후에, 야웨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다(20:12b). 야웨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웨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전의 판결과 유사한 것이다(참조. 민 14:11, 23).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야웨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받았다(레 24:16).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어떤 모습이 야웨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야웨를 공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모욕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큰 죄로 간주될 수 있다.

민수기 20장 2-13절은 기원론적 설명으로 마무리된다(20:13). 모세와 아론은 이 기원론적 설명에서 배제되었다. 기원론적 설명은 ‘므리바(מְרִיבָה)’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단지 백성들이 야웨와 ‘다투었다(רִיב 리브)’는 주제만을 언급한다(참조. 20:3). 이 설명은 야웨께서 자신을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거룩하게 나타내셨다는 언급으로 끝맺는다. 야웨의 이 모

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야웨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20:12)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민수기 20장 2-13절은 모세의 죄를 더욱 드러냄으로 마무리된다.

4. 민수기 20장 2-13절의 문학적-신학적 의도

앞 장에서 다루었던 민수기 20장 2-13절에 대한 구조분석은 본문의 문학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된다. 민수기 20장 2-13절은 물의 결핍이라는 서론적 설명(20:2a)과 트리바라는 지명과 연관된 기원론적 설명(20:13)을 테두리로 하여 그 중앙에 물 기적 사건(20:2b-12)이 배열된 형태로 구성된다. 테두리를 형성하는 서론부와 결론부는 주제어 ‘물’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물과 연관된 사건이 중앙에 놓인 문단에 등장한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다루는 중심 문단(20:2b-12)은 다섯째의 소문단이 교차대구구조(chiasmus)로 배열된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차대구구조에서 야웨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 사항들을 다루는 셋째 소문단(20:6b-8)은 중앙에 위치함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강조된다. 그리고 이 문단의 테두리(inclusio)를 이루는 첫째와 다섯째 소문단도 수사학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교차대구구조에 중심부에 놓이는 셋째 소문단(20:6b-8)은 야웨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현현하셨고(20:6b),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의 말씀을 하셨음을(20:7-8) 묘사한다. 야웨께서 현현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에 대하여 공박하고 대항하였던 백성들을 피해 회막으로 피신한 상태였다(참조, 20:2b-5). 그들이 도피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회막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암시한다. 회막으로 피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20:6a).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은 진노한 백성들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

고 있다(참조, 민 14:5; 16:4).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 속에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오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야웨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현재 대면하고 있는 백성들의 불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말씀하셨다(20:7-8). 야웨께서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네 단계로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20:8). 이러한 야웨의 세밀한 가르침을 통해 모세는 물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20:9-11). 그러므로 야웨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세에게는 백성들의 대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 지도력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물 기적 사건의 중심부에 위치한 모세에게 주신 야웨의 말씀은(20:6b-8) 야웨 하나님을 백성들에게는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무능력 앞에서 괴로워하던 모세에게는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린다.

물 기적 사건의 테두리를 형성함으로 구조적인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 첫째(20:2b-5)와 다섯째(20:12) 소문단은 본문의 또 다른 문학적이며 신학적 의도를 드러낸다. 비록 다섯째 소문단에서 언급하는 모세에 대한 야웨의 평가(20:12)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20:2b-5)를 내용적으로 동일선 상에 놓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두 소문단들은 주제어들의 연결을 통해 서로 엮여져있다. 즉, 백성들의 평가에 언급되는 ‘왜(מָה) 라마’ 라는 의문사와 야웨의 평가에 표현된 ‘왜냐하면(מַדּוּמָּ) 야안’이라는 접속사는 민수기 11장 20절에서 연결되어 함께 사용되는 것처럼 그 언어적 특징에 있어서 서로 엮여져서 이해된다. ‘왜냐하면(מַדּוּמָּ) 야안’

이라는 접속사가 본문 외에 민수기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민수기 11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의 결핍의 상황 가운데 야웨 하나님께 “어찌하여(למה 라마) 애굽에서 나왔던가”라고 불평하였다. 야웨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과 멸시 ‘때문에(לפי 야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고 응답하셨다.

민수기 11장 20절과 유사하게 민수기 20장 2b-1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결핍이라는 상황 가운데 ‘왜(למה 라마)’라는 의문사와 ‘왜냐하면(לפי 야안)’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된다. 이러한 주제어의 연결을 통하여 이 두 단어가 사용된 소문단 -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다루는 첫째 소문단(20:2b-5)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야웨의 부정적인 평가를 다루는 다섯째 문단(20:12) - 은 서로 엮여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들 속에서 모세는 아래로는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묘사된다.

오경과 신명기적 역사에서는 정당한 지도자의 자격으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백성들의 추대와 지지를 언급한다. 예를 들어, 왕에 대한 법을 다루는 신명기 17장 14-20절에는, 합법적인 왕을 세우는 절차가 이렇게 묘사된다: “...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신 17:14-15)²⁵⁾. 여기서 합법적인 왕의 자격은 왕을 세우겠다는 백성들의 요청과(신 17:14), 야웨 하나님의 선택(신 17:15)이다. 즉, 아래로부터는 백성들의 추대가 있어야 하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25) 신명기 17장 14-20절에 나타난 왕의 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정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11집 (2001년 10월), 49-70; 정석규, “왕의 법(신 17:14-20)의 이중적 기능,” 『구약논단』 15권 4호 (2009년 12월), 30-50.

26) 이러한 왕의 자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도 잘 나타난다. 사울이 왕으로

이러한 지도자의 자격은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과 병행을 이룬다. 위로부터는 아웨로부터 선택을 받고 아래로부터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정당한 지도자의 모습(신 17:14-15)과는 달리, 모세는 아래로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위로는 아웨로부터 아웨를 신뢰하지 않고 그 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부족한 지도자로 묘사된다. 물 기적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 20장 2b-12절이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적인 평가(20:2b-5)와 아웨의 부정적인 평가(20:12)를 테두리로 하여 구성된 것은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당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 의도라 할 수 있다. 본문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본문은 단지 모세가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제시할 따름이다. 그러나 현재 형태의 민수기 20장 2-13절은 백성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구조적으로 연결시킴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5. 나가는 글

글의 구성과 짜임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재 형태의 민수기 20장 2-13절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신 아웨의 모습(20:6b-8)과 모세에 대한 백성들과 아웨의 부정적인 평가(20:2b-5, 12)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강조점은 모세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집중된 지금까지의 민수기 20장 2-13절에 대한 연구가 텍스트의 관심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민수기 20장 2-13절에서 구조적으로 중심부에 배열됨으로 강조되는 것은 아웨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다(20:6b-8).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민수기 20장 2-13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물의 결핍이라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에 대항하고 불평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불평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함으로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20:2b-5). 또한 모세는 물 기적을 통하여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적 사건에서 야웨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20:12). 백성들과 야웨로부터의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문학적 기능을 한다(참조. 신 17:14-15). 특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동체의 당면한 과제에 모세가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야웨의 심판의 말씀에서 더욱 명확하게 묘사된다(20:12).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배제된 이유를 구체적인 모세의 죄와 연결시켜 설명하지 않는다. 본문은 모세가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음을 강조함으로 그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보인다. 이러한 지도력의 문제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이끈 것이다. 민수기 20장 2-13절은 백성들과 지도자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야웨의 리더십과,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세의 리더십을 대조적으로 비교함으로 모세가 리더십에 치명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모세의 리더십의 대조는 본문의 결론부인 기원론적 설명(20:13)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야웨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야웨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와는 달리(20:12) 스스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

다고 언급된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참 지도자가 오직 야웨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한계와 모세(와 아론)가 약속의 땅에서 배제된다는 주제는 모세(와 아론)의 죄를 언급하는 다른 본문들에서도 나타난다. 므리바에서 범한 모세와 아론의 죄와 관련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주제는 민수기 20장 2-13절 외에도 민수기 20장 22-29절, 27장 12-14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48-52절에 나온다.

민수기 20장 22-29절은 호르 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으로 아론의 죽음을 다룬다(20:22-21:9). 이 텍스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이유를 므리바에서 범한 그들의 죄와 관련하여 언급한다(20:24). 이 주제는 아론의 죽음과 아론의 리더십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양하는 문맥 가운데 등장한다(20:25-29). 민수기 27장 12-14절은 므리바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모세가 죽을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주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더 큰 문단(27:12-23) 속에 포함된다.

신명기 32장 48-52절도 므리바에서 지은 죄로 인해 모세가 죽을 것이라는 야웨의 예고를 다룬다.²⁷⁾ 이 본문은 모세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주제를 다루는 더 큰 문학적 단락인 신명기 31장 1절-32장 52절에 속해 있다. 신명기 31장 1절-32장 52절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교차대구구조로 배열된다.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삼상 10:1, 24)과 백성들의 추대(삼상 11:14-15)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집도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함으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삼상 13:8-14; 15:10-23), 자신을 추대했었던 백성들과 제사장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삼하 18:6-9; 22:9-19). 다투도 하나님의 선택과 백성들의 추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였다고 묘사된다(삼상 16:12-13; 삼하 24; 5:3).

27)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명기의 기사들(신 1:37-38; 3:23-29; 4:21; 32:48-52)에 대하여는 이 논문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추후의 논문에 다룰 것이다.

1. 모세의 죽음을 위한 후계자 임명과 율법책 기록	31:1-29
2. 모세의 노래	31:30-32:47
3(1'). 모세의 죽음에 대한 아웨의 예고	32:48-52

이러한 구조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서 배제된다는 아웨의 말씀을 다루는 셋째 문단(32:48-52)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주제를 다루는 첫째 문단(31:1-29)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병행을 이룬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주제는(32:48-52) 모세의 지도력과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주제와(31:1-29) 연관되어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민수기 20장 2-13절은 모세의 죄에 대하여 다루는 다른 본문들(민 20:22-29; 27:12-14; 신 32:48-52)과 같이 모세(또는 아론)의 리더십과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민수기 20장 2-13절은 모세와 아웨의 리더십을 대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광야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범죄했었던 출애굽 1세대처럼 모세도 유한하고 죄가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줌과 동시에, 오직 아웨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참 지도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6. 참고문헌

- 정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11집 (2001년 10월), 49-70.
- _____, “왕의 법(신 17:14-20)의 이중적 기능,” 『구약논단』 15권 4호 (2009년 12월), 30-50.
- Arden, Eugene, “How Moses Failed God,” *JBL* 76 (1957), 50-52.
- Ashley, T. R., *The Book of Number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3).

- Beck, John A., “Why did Moses Strike out? The Narrative–Geographical Shaping of Moses’ Disqualification in Numbers 20:1–1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5 (2003), 135–41.
- Budd, P. J., *Numbers* (WBC), (Waco: Word Books, 1984).
- Coats, G., *Rebellion in the Wilderness* (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 _____, “The Wilderness Itinerary,” *CBQ* 34 (1972), 135–52.
- _____, “Legendary Motifs in the Moses Death Reports,” *CBQ* 39 (1977), 34–44.
- Cross, Frank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Davies, G. I., “The Wilderness Itinerari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VT* 33 (1983), 1–13.
- Gray, G.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 Helfgot Nathaniel, “And Moses Struck the Rock”: Numbers 20 and the Leadership of Moses,” *Tradition* 27:3 (1993), 51–58.
- Knierim, Rolf P., and George S. Coats, *Numbers* (FOOTL),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2005).
- Kok, Johnson Lim Teng, *The Sin of Moses and the Staff of God: A Narrative Approach* (Assen, The Netherlands: VanGorcus & Comp., 1997).
- Lee, Won, “The Exclusion of Moses from the Promised Land: a conceptual approach.” *In Changing face of form criticis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Mich.; Cambridge, U.K.: Eerdmans, 2003), 217–39.

- Levine, Baruch A., *Numbers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1993).
- Mann, T. W.,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Denial of Moses,” *JBL* 98 (1979), 481–94.
- Margaliot, M., “The Transgression of Moses and Aaron—Num 20:1–13,” *JQR* 74:2 (1983), 196–228.
- Milgrom, J.,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Miller, Patrick D., *Deuteronomy*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Noth, Martin, *Numbers*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 Olson, Dennis T., *Numbers*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 Propp, William H. C., “Why Moses Could Not Enter The Promised Land,” *BR* 14:3 (1998), 36–43.
- _____, “The Rod of Aaron and the Sin of Moses,” *JBL* 107 (1988), 19–26.
- Sakenfeld, K. D., “Theological and Redactional Problems in Numbers 20:2–13.” *In Understanding the Word: Essays in Honor of B. W. Anderson* (JSOTSup 37), (Sheffield: JSOT Press, 1985), 133–51.
- Sweeney, Marvin A.,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Tigay, Jefferey H.,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Jewish Publication Society: Philadelphia/ NewYork, 1996).
- Tunyogi, A. C., *The Rebellions of Israel* (Richmond: John Knox Press, 1969).

Von Rad, Gerhard, *Deuteronom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Weinfeld, Moshe, *Deuteronomy 1-1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1991).

Wenham, Gordon, *Numbers*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England: IVP, 1981).

검색어

민수기 20장

모세의 죄

트리바

왕의 법

구조분석 방법

A Synchronic Reading of the Account of Moses' Failure to Enter the Promised Land in Numbers 20:2-13

Seokgyu Ju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an exegetical paper on the final form of Numbers 20:2-13, which depicts Moses' failure to enter the Promised Land. This paper is not concerned about the exposing the cause of Moses' failure, but about the intention of the text. In order to disclose the intention of the text, this paper examines the final form of the text by a synchronic approach rather than a diachronic approach.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and texture of the final form of Numbers 20:2-13. The extant form of Numbers 20:2-13 is portrayed in the

rhetorical scheme of inclusio of the introductory exposition on the situation (20:2a) and the concluding etiology on the name (20:13). In this framework, the main block concerning the event caused by the lack of water (20:2b-12) is described in terms of a five-part concentric design as follows: a. People's negative evaluation on Moses' action (20:2b-5), b. Moses' and Aaron's response on the people's complaint (20:6a), c. YHWH's instruction (20:6b-8), b'. Moses' and Aaron's response on YHWH's command (20:9-11), a'. YHWH's negative evaluation on Moses' action (20:12).

Second, the structural analysis on Number 20:2-13 exposes the literary intention of the text. In its extant form, the third major unit concerning YHWH's instructions to Moses (20:6b-8) is most highlighted by being placed at the center of the literary block (20:2b-12) in the chiasmic structure, and the first and fifth major units (20:2b-5, 12) are emphasized by composing the rhetorical scheme of inclusio. In YHWH's instructions to Moses (20:6b-8), YHWH is exhibited as not only a comforter with Moses and Aaron in trouble, but also the One who provides the best possible thing for the people in need as well as the One who restores the crisis of the leadership of Moses caused by the people's protest. The framework of the account (20:2b-5, 12) illustrates that Moses was not a legitimate leader for the people as they entered Canaan by emphasizing the negative evaluations on Moses by both the people from below and YHWH from above (cf. the law of kingship in Deut 17:14-20).

Third, other texts concerning Moses' transgression (Num 20:22-29; 27:12-14; Deut 32:48-52) portray YHWH's denial of Moses and Aaron in relation to their leadership and its transfer to Joshua and Eleazer. Also, the final form of Numbers 20:2-13 shows that YHWH is the only leader of the

Israelites but not Moses by the comparison between YHWH's leadership and Moses' leadership (20:12-13).

Key words

Numbers 20

Moses' sin

Meribah

Law of Kingship

Structural Analysis

- 투고일: 2012년 6월 23일
- 심사일: 2012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7월 25일

www.kci.go.kr